

기본급 141,300원 인상!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노조활동시간 보장! 발암물질 및 CMR독성물질 사용금지!



# 지부교섭 속보

1호

2025.04.17(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 25년 교섭과 투쟁 시작!



### 테스트테크 지부교섭 합류

4월 17일(목) 14시 30분 한온시스템에서 지부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올해는 테스트테크가 지부교섭에 참석해 10개 사업장이 집단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노사 양측은 원만하게 교섭원칙을 합의했다.

####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지회별 순번대로 순환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4시 30분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10인 이상 (각 사별 임원급 1명)
  - 간사 : 노(정성훈 사무국장), 사(JCC 배환석 공장장)
  - 사회 : 노 (테스트테크지회 이준우 사무장)  
사 (코스모링크 민태홍 부장)
  - 서기 : 노(임성우 교선국장), 사(JCC 강은호 부장)

###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지부는 이 날 12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올해 투쟁은 사업장 임금협상을 뛰어넘어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여건에 놓인 사업장을 대표해 발언한 3개 지회(한국JCC, 일진다이아몬드, 한국타이어) 지회장들도 사업장 임금협상을 넘어서는 산별노조로서의 투쟁의지를 밝혔다. 지부는 윤석열 파면투쟁 광장의 열기를 이어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차기교섭 : 4/24(목) 14:30, 한국로버트보쉬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 사측 임원급 교섭위원이 책임있게 교섭 참석해야

**사 :** 다시 만나 반갑다. 온도 차가 심하다. 변덕스런 날씨이니 건강 유의하셔라. 농사할 때 이맘때쯤 퇴비대고 물대고 못자리 내고 했다. 교섭도 때마침 이때 시작한다. 한해 농사 잘 지었으면 좋겠다. 국내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중 거대국가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 등이 우리한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전충북지부 노사는 이해와 양보 속에서 잘 헤쳐나가면 좋겠다.

**노 :** 상견례인데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지부장이 오늘 상을 당해서 못오신 점 죄송하다. 수석부지부장도 최근에 수술해서 요양 중이라 부득이 사무국장이 인사하겠다. 노동자들은 지난 12월말부터 4월4일까지 내란 사태를 경유하면서 길바닥에서 4개월을 보냈다. 사측에서 광장에 나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 그렇게 겨울을 냈다. 파면 결론이 잘 나서 다행이지만 후퇴한 민주주의 복구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다. 오늘 지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했다. 내란세력 종식, 민주주의 복구, 생존권 되찾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북지역 사용자협의회와 지부는 원만한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고민이 든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방식과 내용으로 조기에 마무리 되길 바란다. 노측도 사측도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요구안도 작년보다 쉬운 내용으로 준비했다. 노사관계 악화시키지 말자는 의미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달라. 휴가 전에 타결하고 올해 잘 마무리 하면 좋겠다.

## 교섭원칙 설명 (사회자)

**사 :** 교섭성원 관련해서 작년처럼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해외출장이나 부득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까지 다 막으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니 양해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노 :** 회사 측의 고충은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경유하면서 보니 너무 빈도가 잦다는 평가가 있다. 너무 많이 남용된다. 다른 지역은 대표이사가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지역은 대표이사가 직접 오시는 경우 없다. 위임하고 시작하는건데, 위임의 위임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더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만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 :** 지회가 충분히 상황 파악할 수 있으니 불가피한지 여부는 검증 가능하다.

**노 :** 사측도 불가피한 경우만 하겠다고 상호 신뢰 속에서 하자. 취지 이해하고 신중하게 하는 걸로 하자. 교섭원칙에 남기지는 않되 양해하는 거로 하겠다.